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 58장 반석이냐, 모래냐

『산상설교』 하권 제58장, 인쇄 384~397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24~27

> ❓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신앙이 반석 위 집인지 모래 위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 장에서 두 집 비유의 겉모습을 살폈고, 이 장에서는 그것을 영적 상태에 자세히 적용한다. 먼저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곧 이름뿐인 신자의 특징을 든다. 그는 성급하고 표면적이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구절만 골라 읽고, 죄의 교리를 피한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복을 원할 뿐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특징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다룬다. 그는 이것이 행위로 얻는 구원도, 죄 없는 완전주의도 아니라고 정리한다. 참 믿음은 전 인격에 드러나는 산 믿음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상설교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시험지로 내놓는다. 그리고 참 신자는 가르침 전체를 받아들이고, 자기 실패를 슬퍼하며, 성령을 의지해 성결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설교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초대로 끝난다.

## 📜 절별 정리

### 📜 1. 거짓 신자의 총괄적 특징 — 성급하고 표면적인 심성

로이드 존스는 거짓 신자의 특징을 '총괄적 특징'과 '개별적 특징'으로 나눈다. 총괄적 특징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본 모습 그대로다.

하고, 정의(定義)나 교리로 번거로워지기를 싫어한다. 조급해서 지도와 경험과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하고 참된 지식을 견디지 못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무엇보다 '심성'의 문제라고 본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일반적 심성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심성을 무시하고 행동만 세밀히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1. 모래 위 집 = 어리석고 성급하고 표면적인 신앙
2. 교리와 성경 이해를 번거롭게 여긴다
3. 지도·경험·인도를 받지 않는 조급함
4. 행동보다 먼저 일반적 심성을 보아야 한다

> **마태복음 7:26**
>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건축자에 비유한, 이 분석의 출발점
>
>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 **마태복음 7:24**
> 대조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
>
>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 2. 골라 읽는 신앙 —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성경 읽기

첫째 개별적 특징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열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복을 얻으려 애쓴다는 점에서 교회 밖 사람과 다르다. 그러나 출발점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계산이다. 그래서 복음의 가르침 전체나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려 하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이를 건축 비유로 설명한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설계도도, 건축 안내서도, 건축가의 조언도 쓸데없는 소동으로 여긴다. 거짓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둘째 특징은 믿음에 드는 것만 고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지만

말은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장 36절의 하나님의 진노까지는 읽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초에 크게 유행한 경향을 예로 든다.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버리고 복음서만 읽었다. 복음서에서도 거슬리는 부분을 빼고 산상설교만 남겼다. 산상설교에서도 팔복은 건너뛰고 “원수를 사랑하라”만 읽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유화주의자, 이상주의자라고 불렀다. 로이드 존스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다.

1. 동기는 “나에게 무엇이 남나”
2. 설계도 없이 짓는 사람처럼 말씀 연구를 귀찮아한다
3. 사랑은 좋아하고 공의와 진노는 뺀다
4. 20세기 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만 남겼다
5. 말씀이 나를 검토하게 해야 바른 읽기다

> **요한복음 3:16**
> 거짓 신자가 좋아하지만 “멸망하지 않고”는 흘려 읽는 구절
>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36**
> 같은 장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골라 읽는 사람이 외면하는 부분
>
>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마태복음 5:44**
> 산상설교 전체에서 떼어 내 이것만 강조하던 구절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마태복음 5:3**
> 그들이 건너뛴 팔복. 산상설교의 실제 출발점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 3. 죄의 교리를 피하는 사람 — 복은 원하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거짓 신자의 일관된 특징은 죄의 본성과 결과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비참한 느낌이나 자기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 그래서 불편하게 하는 설교자와 구절을 싫어하고, 늘 위로와 행복감만 찾는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하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피하게 된다고 말한다. 성경은 무엇보다 죄의 결과를 생생하게 해설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구약이 위대한 영웅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기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힘이 있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타락했음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는 한 사람의 예를 든다. 그 사람은 '죄들'에 대한 설교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간 본성 자체가 타락했다는 설교는 지나치다며 교회를 떠났다. 로이드 존스의 진단은 이렇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지 않는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는 의와 성결과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관심이 없다. 안락의자에 앉아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형편 좋기만을 바란다. 그것도 자기 조건과 자기 방식으로 바란다.

1. 비참한 느낌을 피하려고 죄론을 외면한다
2. 성경은 죄의 결과를 생생하게 해설하는 책이다
3. 다윗의 죄는 우리의 타락을 보여 주려고 기록되었다
4. '죄들'은 인정해도 '죄성'은 거부한다
5. 복은 원하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 **시편 51:5**
>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고백. 본성의 타락을 보여 준다
>
>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에베소서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로마서 7:18**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태복음 5:6**

거짓 신자가 그 뜻을 모르는 '의에 주리고 목마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하나님의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 📜 4. '행한다'는 무엇이 아닌가 — 행위 구원도, 완전주의도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이 말을 산상설교를 실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으로 읽지 말라고 경고한다. 산상설교는 전체로 읽어야 하고, 그 출발은 팔복이다. 첫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이다. 심령의 가난은 자기 안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아는 마음이다. 우리는 평생 애써도 스스로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 수 없다. 5장의 정점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뜻일 수 없다. 그렇게 읽으면 신약 전체의 메시지와 모순된다. 또한 이 말씀은 산상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죄 없는 완전주의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로이드 존스가 내놓는 열쇠는 야고보의 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지적 동의는 "주여, 주여"에서 멈춘다. 참

2. 마태복음 5:48의 요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3. 그러니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4. 다 지켜야 천국 간다는 완전주의도 아니다
5.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7:21**

"주여 주여"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의 대조. 이 단락의 기준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3**

산상설교가 사람의 노력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증거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48**

인간이 이를 수 없는 표준. 행위 구원이 아님을 보여 준다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8:3**

우리가 못 한 일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이루셨다

>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마태복음 19:26**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1:8**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야고보서 2:26**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로이드 존스가 꼽은 믿음의 정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 📜 5. 믿음은 전 인격에 드러난다 — 은혜 아래서의 순종

참 믿음은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 곧 외모와 태도와 남에게 주는 인상에도 나타난다. 산상설교가 그리스도인에 대해 처음 말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기만족에 빠진 모습으로 보일 수 없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며 은혜받은 듯 보이면서도 늘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말의 뜻을 모른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그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경외감을 가지고 전했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한 해석을 반박한다. 산상설교는 당시 제자들과 미래 왕국의 유대인에게만 해당하고, 우리가 지키면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은혜 아래 쓰인 요한일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고 답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7:21을 되풀이한 것이고, 신약 전체의 메시지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으로 삼으려고 자신을

2.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만족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바울은 떨림과 경외감으로 복음을 전했다
4. 은혜 아래서도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요한일서)
5.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이다

> **고린도전서 2:3**
> 자기만족과 대비되는 바울의 약함과 떨림
>
>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 **요한일서 1:6**
> 사귐을 말하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다
>
>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 **요한일서 2:4**
> 안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 “산상설교는 지금과 무관하다”는 해석에 대한 반박
>
>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 **디도서 2:14**
>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
>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데살로니가전서 4:7**
> 우리는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받았다
>
>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 6. 산상설교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시험지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로이드 존스는 최선의 기준을 내놓는다. 산상설교를 전체로 들을 때 반발이 생기는가? 불가능한 것을 강요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망 없게 만든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의 반응이다. 거짓 신자는 자기 검토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 말을 조심스럽게 꾸밀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실제 모습은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서 드러난다. 거짓 신자의 다른 특징도 있다. 들은 것을 곧 잊어버리고, 산상설교를 칭찬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며,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반대로 참 신자는 5~7장 전체를 정면으로 대한다.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내어 읽는다. 마음에 드는 시편을 잠 안 오는 밤의 수면제로 쓰지 않는다. 말씀 전체가 자기를 살피게 하고, 그 징계가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다. 자기 실패와 무가치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진다. 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나 브레이너드, 칼빈처럼, 바울처럼, 무엇보다 주님처럼 되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 기준이 지금 죄가 있는지, 완전한지를 묻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기준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1. 산상설교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정체를 드러낸다
2. 반발과 “불가능하다”는 거짓 신자의 반응이다
3. 잊고, 칭찬만 하고, 일부만 취하는 것도 같다
4. 참 신자는 전체를 대하며 말씀의 검토를 받는다
5. 기준은 지금의 완전함이 아니라 소원의 방향

> **히브리서 12:11**
> 말씀의 징계는 당장은 슬퍼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5:3~5**

말씀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 팔복에 일치해 간다

[3]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참 신자의 표지인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 📜 7. 가르침 전체를 받고, 실패를 슬퍼하며, 성결을 구하라

참 신자는 율법에 대한 주님의 영적 해석을 옳다고 받아들인다. 간음하지 않았다는 데 만족하지 않고, 마음까지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는 구제를 선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전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도 주목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의 교훈, 세상 물건에 매이지 말라는 교훈, 성한 눈의 교훈을 기억한다. 참새를 먹이시는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맡긴다.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 눈의 들보를 빼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슬퍼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해진다는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끝까지 밀고 나간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행한다'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는 것이다. 죄 용서와 지옥 탈출만이 아니라 이생에서 적극적인 성결을 원하는 것이다. 성결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해져 가는 삶을 말한다. 그는 찰스 웨슬리의 찬송 "죄로부터 해방된 마음을 주소서"를 마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동의하는 삶이다. 반대로 이 기준에 답할 수 없다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이다. 그 집은 심판 날에 반드시 무너진다. 전쟁이나 핵폭탄, 재산의 상실 앞에서 그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체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는 초대한다. 성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1. 율법의 영적 해석과 5~7장의 교훈을 모두 받아들인다
2. 다 지키지 못함을 슬퍼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3. 용서를 넘어 이생의 적극적 성결을 원한다
4. 모래 위 집은 심판 날, 혹은 그전에도 무너진다
5. 지금 고백하고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마태복음 5:28**

행위를 넘어 마음의 정욕까지 다루는 율법의 영적 해석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3**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구제

>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26**

참새를 먹이시는 아버지께 맡기는 삶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7:3~5**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들보를 뺀다

[3]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7**

실패한 신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붙드는 약속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베드로전서 5:6**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 낮추라는 결단의 촉구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히브리서 12:14**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설교의 마지막 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 ⚖️ 오해와 반론

## 📖 용어

**이름뿐인 신자(거짓 신앙 고백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복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교리**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집으로 치면 설계도에 해당한다.

**심령의 가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마음으로, 팔복의 첫째 복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
복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다.

**행위에 의한 의인(칭의)**
사람이 율법을 지킨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로이드 존스는 이를 부정한다.

**완전주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죄 없이 완전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주장이다.

**지적 동의**
진리를 머리로 맞다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다.

**성결(성화)**
의롭다 함을 받은 신자가 성령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 가는 삶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않는 마음이다.

-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은 행위 구원도 완전주의도 아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며, 참 믿음은 전 인격에 드러난다.
- 은혜 아래 있는 신자에게도 순종은 필수다. 구원의 목적 자체가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 가장 정직한 시험지는 산상설교 앞에서의 즉각적 반응과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소원의 방향이다.
- 기준에 답할 수 없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성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